

장흥서 카페리 타고 떠난 제주도 관광

1시간 50분만에 성산항 초록빛 정원 향기에 흠뻑



전남에서 제주까지 가는 뱃길이 빨라졌다.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출발해 제주도 성산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50분. 4시간 이상 걸리는 긴 항해로 배 멀미 등 고생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 항로에 지난 2일 취항한 카페리 오렌지호(장흥해운)를 타고 가 지난 2일 취항함에 따라 직접 경험 해보기로 했다.

◇카페리 관광 새 지평 오렌지호=취재진은 지난 7일 승용차를 몰고 장흥 노력항으로 향했다. 매일 두 차례 제주도로 가는 일정 중 오전 배(8시40분 출발)를 타기 위해선 광주에서 새벽 5시30분에 출발해야 했다. 광주에서 장흥 노력항까지는 약 100km의 거리로 승용차로 2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또 오렌지호에 승용차를 싣기 위해선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

간단한 수속을 밟고 오렌지호에 탑승했다. 2000t급의 오렌지호는 길이 80m·넓이 19m의 쌍동패속선(두 척의 배를 이어 만든 패속선)으로 56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67대의 승용차를 싣을 수 있다. 내부는 쾌적하고 깔끔했다. 대형 LCD TV가 좌석 곳곳에 설치돼 있어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다. 매점도 갖춰져 있어 간식거리도 사 먹을 수 있다. 승무원도 수 명이 좌석을 자주 왕래하며 승객들의 불편함을 경청

했다. 평균 40노트(시속 74km)의 속도로 운항하는 오렌지호는 제주 성산항까지 96.54km의 항로를 단 1시간50분 만에 주파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파도를 가르며 속도가 느껴질 정도다. 빠른 속도 때문에 갑판으로 나갈 수는 없다. 대신 대형 유리창을 통해 바깥 경관을 하연 된다.

야생화 천국 전세계 300여종 자태

노루와 함께 뛰놀며 생태 체험도

◇야생화의 천국...노루와 함께 생태 체험도=제주도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인 탓에 하루에도 수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관광지도 꾸준히 생기고 있어 골라 다니는 재미도 크다. 조용한 관광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만한 곳은 바로 야생화와 분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는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각하는 정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수관광지 심사평가 1위로 선정된 바 있

는 이곳은 성범영 원장이 20여년간 직접 가꾼 곳으로 유명하다. 단순한 식물원이 아닌 이곳에 '영혼의 정원' '철학자의 정원' '감귤 정원' 등 7곳의 주제로 나뉘어 다양한 식물을 1시간 가량 둘러볼 수 있다.

야생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관광객이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다. 바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세계 야생화 박물관 방림원'. 전세계 야생화가 모여있는 이곳은 300여종이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철쭉 언덕·무궁화동산과, 음이온을 느낄 수 있는 방림굴도 구경할 수 있다.

생태공원에서 직접 노루를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체험장도 유명하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은 52만㎡(15만7000평)에 200여마리의 노루가 자유로이 뛰놀고 있다. 관광객들은 관찰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노루를 만지고 음식도 주면서 함께할 수 있다.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항까지 가는 배는 하루 두 차례 운항한다. 오전 8시40분·오후 3시10분 출발하는 오렌지호는 성인 요금 2만9500원(성수기 할증요금 3만2500원)이며 차량 선적은 4만8000원(국산 승용차 기준)이다. 제주 성산항에서 장흥으로 들어오는 배도 낮 12시·오후 6시30분 두 차례 운항한다. 문의 클럽모두(062-228-1990), 장흥해운(1577-5820)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수관광지 심사평가 1위로 선정된 '생각하는 정원'은 단순 식물원이 아닌 7곳의 주제에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명품 정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안공항서 떠나는 마카오·홍콩·심천 여행



홍콩 침사추이에서 펼쳐지는 레이저쇼인 '심포니 오브 라이트'의 화려한 모습. (홍콩관광청 제공)

천만불 야경에 반하고 중세유럽의 낭만 만끽

마카오의 카지노 문화, 홍콩의 천만불 야경, 중국 심천의 웅장한 민속쇼... 마카오·홍콩·심천을 잇는 코스는 각 국가간의 이동 시간이 짧아 일정이 길지 않더라도 각기 다른 여행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유럽을 만나다 - 마카오

오랜 기간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유럽의 향취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곳이다.

시가지 중심부 구릉 위에 세워진 성 바울 성당은 마카오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며 세나도 광장에 자리한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왜 마카오가 '아시아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지 보여주는 곳이다.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서 있는 까모에스 정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그대로 옮겨놓은 '베네치안 마카오'에서는 뮤지컬 '태양의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으며 드라마 '궁'의 촬영지로 유명한 플로안 마을 등도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야경에 취하다 - 홍콩

마카오에서 페리를 타고 50분이면 도착하는 홍콩 대표 볼거리는 화려한 레이저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다. 모두 4400만 홍콩 달러를 쏟아부은 이 쇼는 13분 34초간 37개 빌딩이 내뿜는 화려한 레이저 쇼다.

또 이소룡, 양조위 등 홍콩 출신 세계적 스타들의 손도장과 사인이 든 명품들을 만날 수 있는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 역시 놓치기 아까운 관광 포인트다. 아시아 최고의 밀랍인형관 '마담투

소', 2005년 개장한 홍콩 디즈니랜드, 880m 가람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펼쳐지는 소호거리, 몽콕 야시장 등도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민속쇼에 빠지다 - 심천

홍콩역에서 기차를 타고 40분이면 도착하는 중국 심천에는 볼거리가 즐비하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은 소인국과 테마파크로 구성된 '심천 민속촌'이다.

소인국에는 세계 유명 건물들의 미니어처가 자리잡고 있으며 민속촌에서는 55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을 포함한 21개 민족의 전통생활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심천 민속촌의 하이 라이트는 매일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벌이는 민속쇼다. 1000명이 넘는 인원과 웅장한 스케일과 무대장치, 공연 내용으로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행팁

무안공항에서 총 7회 운항하는 전세계 편을 이용하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무안공항에서 마카오까지 운항하는 직항(마카오 환공)은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25일을 시작으로 29일, 8월 1일, 5일, 8일, 12일, 15일 등 모두 7차례 운영된다. 하나투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2가지로 홍콩과 마카오를 돌아볼 수 있는 2박 4일 일정은 84만9900원, 중국 심천이 포함된 3박 5일 일정은 89만9천원이다. 상품에는 식사와 숙박, 현지 교통편 등이 포함돼 있다.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문의 062-360-0166.

텐트·바캉스용품

의류 및 용품

90% ~ 30%

오토캠핑장비 SALE

최고의 상품 전국 최저가!

월드잡경가장 정문 맞은편

백두산막 상설해장 062 376-2585

남성 탈모 / 여성탈모

탈모

초전성모의원

최로다씨를 수족 효과는 두 배입니다!

초전성모의원

010-8509-1380

0541031-4870